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'10년 7월, 공인인증서로 모든 보험계약 조회 가능

- 금감원은 생·손보험회와 공동으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편리한 조회를 위해 각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.
  - 지금까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·손보험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의 일괄 조회가 곤란하고, 보험가입 내역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.
- 현재 보험가입 조회제도는 가입한 해당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직접 조회하거나 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함.
  -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모든 보험계약의 상품명, 보장내용, 보험료, 보험기간, 납입기간, 계약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
  -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(보험회사, 상품명, 증권번호 등 개략적인 정보)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하기도 함.
  - 그 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(사망자)의 모든 금융기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, 금융감독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 조회가 가능함.
-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생·손보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방식을 통해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2010년 7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임.
  -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생·손보험회의 인터넷 보험계약 조회서비스를 전체 보험계약으로 확대할 계획임.
  - 다만, 전화를 이용한 조회신청은 본인확인 곤란함에 따라 보험계약 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제외하며, 조회결과는 약 1 주일 경과 후 확인할 수 있음.

(보험가입 조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, 2/4)